

기획의 말

이 영 목 (서울대학교)

개념으로서나 실제 현상으로서나 불어문화권의 기원은 프랑스 식민주의 팽창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의 ‘탈식민화’에 대한 연구는 불어문화권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번 『불어문화권 연구』의 특집 기획인 ‘식민주의적 상상력과 그 극복’ 역시 마찬가지로 맥락에 속한다.

식민 지배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잘 훈련된 군대와 우월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식민자와 피식민자 양편의 정신세계를 바꾸어 놓는 식민주의적 상상력이다. 알베르 메미가 식민자와 식민주의자의 ‘초상화’를 그리고, 프란츠 파농이 피식민자들의 또 하나의 피부가 되어 버린 여러 ‘하얀 가면들’을 묘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 ‘식민주의적 상상력’은 정말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에 의해 주입된다. 여기서 교육은 학교로 대표되는 공적인 체계뿐만 아니라, 보다 교묘하고 설득력 있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나 동화가 그렇다. 프랑스 제3공화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재였던 『두 어린이의 프랑스 일주 *Le Tour de la France par deux enfants*』이 바로 그 두 차원의 결합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수아즈 벨기에의 만화에서 ‘식민주의적 상상력’을 보려는 김세리의 작업은 의미가 있다.

정신의학자로서 파농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식민주의 자체가 정

신병자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식민주의적 상상력’은 정신병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식민투쟁의 투사로서의 파농의 삶은 정신의학자로서의 그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김태희는 파농과 그의 후계자들이 이론가이자 실천가로서 싸워왔던 그 식민주의적 정신의학의 형성 과정을 밝히면서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는 탈식민화의 여러 과제들을 환기시킨다.

그러나 상상력의, 여러 의미에서의 최고의 형태는 바로 문학, 진정한 문학에서 찾을 수 있으며, 또 상상력은 상상력에 의해서만 제대로 해체되고 분석되며, 파기되고 새로운 상상력에 자리를 내어준다. 이것이 문학의 힘이며, 이 사실은 소나 라부 탄시의 소설에 대한 심재중의 세밀한 분석이 보여주는 바다.

이 세 편의 기획 논문 외에도, 프랑스 및 프랑스어권의 문화 현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지향하는 우리 학술지의 목적에 맞게 여러 논문이 실리게 되었다.

먼저 프랑스문학 영역에서는 중세 문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그라알 이야기』를 분석한 김정희의 논문과, 말라르메의 시를 다룬 도윤정의 논문, 그리고 사르트르의 미완성 기행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강충권의 논문이 있다. 프랑스어학 분야에서는 프랑스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그 정의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de + 형용사 구문에서의 de’, 그리고 ‘허사의 ne’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한 김종명과 임재호의 논문이 있다. 이민주와 이충훈의 논문은 우리 『불어문화권 연구』의 발간 취지에 아주 잘 어울리는 작업이다. 이민주는 프랑스의 인도주의 구호가 보여주는 여러 현상과 그것을 둘러싼 역사적,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이충훈은 18세기의 대표적인 화학자 라부아지에가 단지 정밀과학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언어’의 차원에서도 ‘혁신’과 ‘혁명’을 가져왔는지 보여준다. 이

두 논문은 우리 학술지의 특징이자 장점인 학제적 연구의 필요로움을 증명한다. 끝으로 히로츠크 야마조의 논문에 주목하고 싶다. 마찬가지로 문학과 정치철학을 넘나드는 학제적 관점에서, 야마조의 논문은 그 실체 여부마저 의심시되는 파스칼의 정치사상이 분명 존재함을 입증하고 그 이중성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불어문화권 연구』는 기획 영역을 강화하면서 프랑스 및 프랑스어권의 문화 현상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학제적 접근이라는 우리의 목표에 충실할 것을 약속한다.